



새누리당 이장우(오른쪽) 최고위원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계 의원들을 명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 전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해훈, 심재철 의원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개헌 목소리 높이는 정치권

손학규·김종인·정세균·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안돼”

새누리 개헌추진회의 오늘 2차 회의... 개헌관련 제안 수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의 거목급 인사들이 개헌 추진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이면서 향후 정치권이 개헌 정국으로 흐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12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 합성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으로 해결했다 이 다음 과제는 정치권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유준호입니다’에 출연, “공약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는 전부 다 부정직한 사람들의 얘기”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대통령 후보가 개헌에 대해 찬성을 안 하니 개헌을 못 한다는 식으로 개헌 문제를 다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개헌은 중장기적이고,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 개헌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하루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의 봉쇄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국가번혁을 위한 개헌추진위원회(약칭 개헌추진회의)’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을 확정했다.

개헌추진회의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강창희·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법학·정치학 전문가 그룹인 대화문화 아카데미 등으로부터 개헌 관련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결성된 개헌추진회의에는 김무성 전 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김광림 정 책위의장 등 소속 의원 40여명이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친박 vs 비박 서로 “나가라”...진흙탕 새누리

비박, 최순실 남자 8명 탈당 요구...친박 “김무성 배신의 아이콘”  
비상시국위·구당 모임 발족 당대당 활동...주도권 놓고 전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당내에 모임을 만들어 세 대결을 하는가 하면 상대 정파의 지도부급 인사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상 분당(分黨)의 수순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당내에는 박 대통령 탄핵 추진단 계부터 비박계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친박계는 ‘혁신과 통합연합’이란 ‘구당모임’을 발족해 각각 ‘당내당’ 활동을 할 태세다.

나이가 양측은 상대의 지도부를 정면 겨냥했다.

비상시국위는 12일 오전 회의에서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서정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핵심 8명을 지목해 탈당을 요구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브

리핑에서 이들 8인에 대해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친박계가 전날 ‘혁신과 통합연합’ 모임을 결성키로 데 대해 “사실상 보수 재건을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모여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을 사당화하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모임 해체와 친박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친박계로 구성된 지도부는 비박계의 퇴진 요구를 일축한 한편, 비상시국위를 이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표를 향해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과 맞바꾼 배신과 배반, 역린 정치의 상징”이라며 “인간 이하의 처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분장) 하는, 배반과 배

새누리당 세력 분포

<b>혁신과 통합 연합</b> (친박계)	<b>비상시국위원회</b> (비박계)
이정현 대표, 서정원·최경환 의원	김무성·유승민 의원
조원진 최고위원, 정갑윤·원우철·유기춘·최경환·홍문종·윤상현 의원	주축 의원, 심재철·정병국·김재경·나경원·주호영 의원
재선 최소 20명 이상 (재선의원 37명 중)	중심 그룹 선수, 3선 의원 최소 17명 (3선 의원 23명 중)
김영연·김선동·김진태·김태을·박덕을·박대을·이우현·이원영·이장우·황진규 등	중심 그룹 의원, 강석호·권성동·김성태·김학용·이진복·황영철·김세연·이혜훈 등
20대 총선 최선의원(46명) 대부분 포함	최선 의원, 박성중·윤환용·정운찬·김용석·김원아 등

연방뉴스

신의 아이콘인 김 전 대표, 유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일 뿐이다”며 “새누리당은 이제 이 두 분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세 대결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비상시국위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62명이 사실상 반(反)친박계 전선에 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친박계가 전날 구성한 ‘혁신

과 통합연합’에 50여명의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양측은 당장 탈당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구 경쟁 문제가 탈당을 주저하게 한다. 또 1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강제로 출당을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새누리당이 보유한 재산도 각 계파가 분당시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당을 나가면 당의 재산은 물러가거나 중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한 보조금과도 이별이 때문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2015년 기준 새누리당의 재산은 중앙당 445억원, 시·도당 70억원, 정책연구소 50억원으로 총 565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는 토지 166억원, 현금·예금 155억원, 건물 79억원 어치의 재산을 보유하고, 올해 선관위에 서 받은 경장보조금은 160억원이다.

따라서 양측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놓고 교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대표가 오는 21일 사퇴를 공언한 바 있으며, 정진석 원내대표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대통령 징계 수위 20일 결정

朴대통령, 결정 연기 요청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또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당 비주류 측 의원들이 지난 달 제출한 징계요구안과 전날 접수된 박 대통령의 소명서 등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에서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리위원들은 “사법적 절차와 판단은 윤리위의 검토 대상도, 고려 대상도 아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이진근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 손학규 “개헌 고리 안철수와 연대 가능”

“개혁 세력 재편 필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 및 연합 의사를 나타내 주목되고 있다.

손 전 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권의 개헌 찬반 논의와 관련,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헌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

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손 전 대표는 “길거리의 합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 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며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다. 이번도 탄핵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인데 국민의 뜻을 나라를 바꾸자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런 차원에서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의원은 충분히 좋은 세력이며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개혁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손 전 대표의 발언은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정계 개편과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손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 탄핵으로 학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사태가 일어나 처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려라,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정권, 특히 야당이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대통령 즉각 퇴진 주장에 대해서 “국민 합성으로는 당연히 내려와야 하지만 헌법재판소 논의만큼은 지켜봐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안철수, 대통령 퇴진 국민 서명 현재 전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21만 명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현재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국민의 염원을 알아주시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5일간 온라인으로, 29일간 전국에서 실제 서명을 받아 21만명의 뜻을 모았다”며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실행해 줬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현재를 향하고 있다”고 현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개  
법인

#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경매 병원**

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매매**

**수익형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지구 / 총 3층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엘리베이터  
중심상업지역  
수익률 8~9%

**경매**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수익형 상가 건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매매**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매매가 10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